

사람생각!  
소통의 공간!  
행동하는 지성!

# 할말은 한다 2호

2019년 1월 21일 월요일 <http://korea.nodong.org> 발행/고대의료원지부 발행인/노재옥 전화/920-5159

## 환자를 살리려다 저희가 먼저 죽겠습니다.

“어떻게 간호사가 수술업무 외에 다른 일을 해요?”, “저는 A병원에 4년 근무했지만 O/T를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얼마 전 그만 둔 수술실의 A간호사는 타 병원 수술실에서의 경력이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고대병원의 시스템에 혀를 내둘렀다. 수술 후 세척을 간호사가 한다는 것을 고대병원에 와서 처음 알았다고 한다. 그리고 엄청난 시간의 연장근무와 당직 근무 때도 열리는 정규 수술을 참지 못하고 사직서를 쓰고 나가버렸다.

줄줄이 문자 사직, 단체 채팅방에 신규 간호사의 문자가 날아왔다. “선생님 너무 힘들어서 그만둘게요 죄송해요.”

신규 간호사였던 B간호사는 고도의 집중력과 전문성을 요하는 수술실 마취과 업무를 감당하지 못한 채, 채팅방에 한마디를 남기고 다음날부터 출근을 하지 않았다. 이른바 응급사직이라고 하는 ‘응사’를 문자로 한 것이다.

수술실 마취과는 2018년 1년 동안 약 13명의 간호사가 그만두었다. 지금도 그만두겠다며 사직면담을 신청하는 간호사들이 매일 대기 하고 있다. 대체 인력은 전혀 없다. 결국 사직을 쓰고 싶어 하는 간호사들을 붙잡아 꾸역꾸역 마취·수술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고대병원 수술실 마취과의 현실이다.

고대병원 수술실 마취과 간호사는 신데렐라!?

허드렛일은 기본! 근무 후에도 정규수술 배치, 연장근무는 보너스, 생후 입력해도 사람 없다 잘리기 일쑤.

고대병원의 업무가 얼마나 고됐으면 병원 쪽으로는 약속도 잡지 않는다고 한다. 수술실 마취과 간호사들의 업무환경이 너무나 열악하다는 것이다. 실례로 타 병원에서는 하지 않는 마취업무, 수술 전 기구 준비, 수술 중 부족한 물품 수급, 수술 후 기구 세척 등의 일을 고대에서는 전부 간호사가 한다. 또한 수술실 활성화를 위해 간호사들의 출근시간을 앞당겼으며, 정규업무가 끝난 시간에도 화요일과 수요일 밤 10시까지 정규수술을 잡는 등 부서원의 동의 없이 근무시간을 변경하기까지 했다. 생리휴가는 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연차 또한 자신이 원하는 날 가는 것이 아니라 수술이 없는 날 갑작스럽게 공지를 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당사자는 출근했다가 바로 퇴근을 한다. 병원발전을 위해 열악한 환경, 강도 높은 업무, 단협위반, 근로기준법 위반을 그냥 참고 견디라는 것이다.

의료원과 안암병원은 인력충원, 효율적인 근무 형태 변경, 생후 및 연차 사용 대책이 담긴 인력 운영 계획을 제시하라!

## ■ 수술실 마취과 조기출근은 단체협약 위반

안암병원은 수술실 활성화를 이유로 수술실 마취과 직원들의 근무시간 및 업무 변경 내용이 담긴 문서를 배포했다. 주요 내용은 ‘수술 시작 시간을 당길 수 있도록 환자를 7시 15분에도 입실이 가능하도록 조정’ 하라는 것이다. 이는 노사 합의로 맺어져 있는 단체협약 37조를 위반하는 것이다. 더욱이 병원은 조기출근에 대한 결정을 부서원들과 논의한 바 없다. 조기출근 시간은 자신들의 먼저 와서 일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이라는 명목으로 인정 하지 않고 있다.

### <수술실 운영위원회 수술 시작 시간 변경 지침>

#### ■ 수술 시작 원칙

- 환자 입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술실 운영위원회 결의에 의해 배정받은 수술실에 8:15- 8:20 사이에 환자는 수술실에 입실
- 화(외과), 수요일(정형외과)에 1개의 수술실은 7:15분에 입실 가능. 상기 두 과가 사용하지 않을 경우 마취과의 재량에 따라 타과에 방을 배정할 수 있음
- 특별한 사유(예: 수술 전 검사 이상, 환자의 변심, 수술 취소) 발생 시 수술과는 7:30분 이전에 마취과에 연락을 취하여 수술실 운영이 원활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함.
- 마취의 시작: 마취 준비가 끝나면 마취과 의사 환자 확인 후 늦어도 8:30에 마취 유도제 투약을 목표로 한다. 단, 마취 유도를 위해 수기가 필요한 경우(예: 동맥관 삽관) 예외를 둘 수 있음

## ■ 연장근무를 쌓아놨다가 1년에 한번 정산하는 근로기준법 위반

수술실 마취과는 수술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특성 상 조기 출근에 연장근무까지 10시간이고 100시간이고 계속 일을 할 수 밖에 없다. 결국 한 달에 쌓이는 O/T가 20,000분에서 30,000분까지 적치된다. 병원에서는 이를 바로 지급하지 않고 1년 간 방치 후 한 번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직원들의 임금체불을 조장하고 있다.

연장근로수당은 법정수당임으로 근로가 발생한 직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 56조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사항이다.

## ■ 휴게시간 보장 못 받고, 주 6일 근무까지! 단체협약 위반에 근로기준법까지 위반

수술실 마취과의 근무에는 D-D-D-N-N-N가 있는데 연속 6일을 근무한다는 뜻이다. 항상 1-2명은 주 6일 근무를 하고 있다. 그러나 단협 36조 근로시간에는 주 5일 근무를 하게 되어 있으며, 단협 37조 교대근무자 근로시간에는 다음 근무 시 역일 상 12시간의 휴게시간을 확보해야 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단협위반이며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그리고 파행근무를 계속해서 강제시킨다면 중간관리자의 부당노동행위로도 볼 수 있다.

## ■ 수술 활성화 계획은 있고, 인력 충원 계획과 트레이닝 계획은 없고!

운영위원회의의 결정으로 인해 늘어난 수술 방, 야간 정규 수술 배치가 시행되면서 기존 인력으로는 수술마취 업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또한 전체 간호사의 30% 정도가 18년도에 갓 입사한 신규 직원으로 수술 마취를 안전하고 능숙하게 시행할 간호사의 숫자도 많지 않다. 왜냐하면 수술마취의 전문적인 트레이닝은 시행하는 모든 과의 특성을 익혀야하기 때문에 약 1년 전후 되어야 실질적인 독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 강도가 계속 높아진다면 신규간호사 부적응 -> 응급사직 도미노 -> 또 다른 신규 간호사 투입 -> 의료의 질 저하 -> 환자생명 위험에 처해지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사실은 자명하다.

간호부에서는 인력을 신청했으나 조금만 기다리라는 것 외에는 아무런 답변이 없다. 이렇듯 수술실 마취과의 인력운영 계획은 전무하다. 수술실 운영위원회의의 결정이 끝일뿐이다.

간호사들의 근로기준법 위반과 단협위반에 대한 대책, 안전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료인력 수급 계획, 간호사들의 연차생리휴가를 위한 대책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이미 타 병원은 수술실 마취과의 3교대 전환을 통해 수술 전수와 안정적인 인력 운영으로 효율을 높여가고 있으나 고대병원만 당직근무를 고집하고 있다. 계속해서 구시대적인 근무 형태를 고집한다면 의료의 질과 환자의 생명은 담보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이 해결책을 찾지 않고 외면한다면 부서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결국 투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이후 일어날 모든 문제는 의료원과 병원 그리고 간호부가 책임져야 할 것이다.